

안전, 품질, 환경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발전소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는 울산·경남지역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1970~80년대 산업발전 중흥기부터 지금까지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또한 발전소건설 이후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선진문화를 선도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입지도 착실히 구축해 오고 있다. 영남화력발전소의 슬로건은 "창의와 역동적인 사업소 구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야별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업무의 최우선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 안전분야로서 '인간존중, 인명중시, 3무(무재해, 무사고, 무상해) 달성', 둘째, 품질분야로서 '설비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영체제 구축', 셋째, 환경분야로서 '환경경영 선진화로 녹색성장 추구, 선도적 환경관리로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인간존중의 아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곳이 안전경영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화력발전소로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구성원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다는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를 찾아봤다.

취재·사진 | 김성대 기자 qishu002@safety.or.kr



안전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

이곳의 안전활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곳에서의 안전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 외에도 동료작업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신경 써 줄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재해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무재해에 대한 모든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안전관리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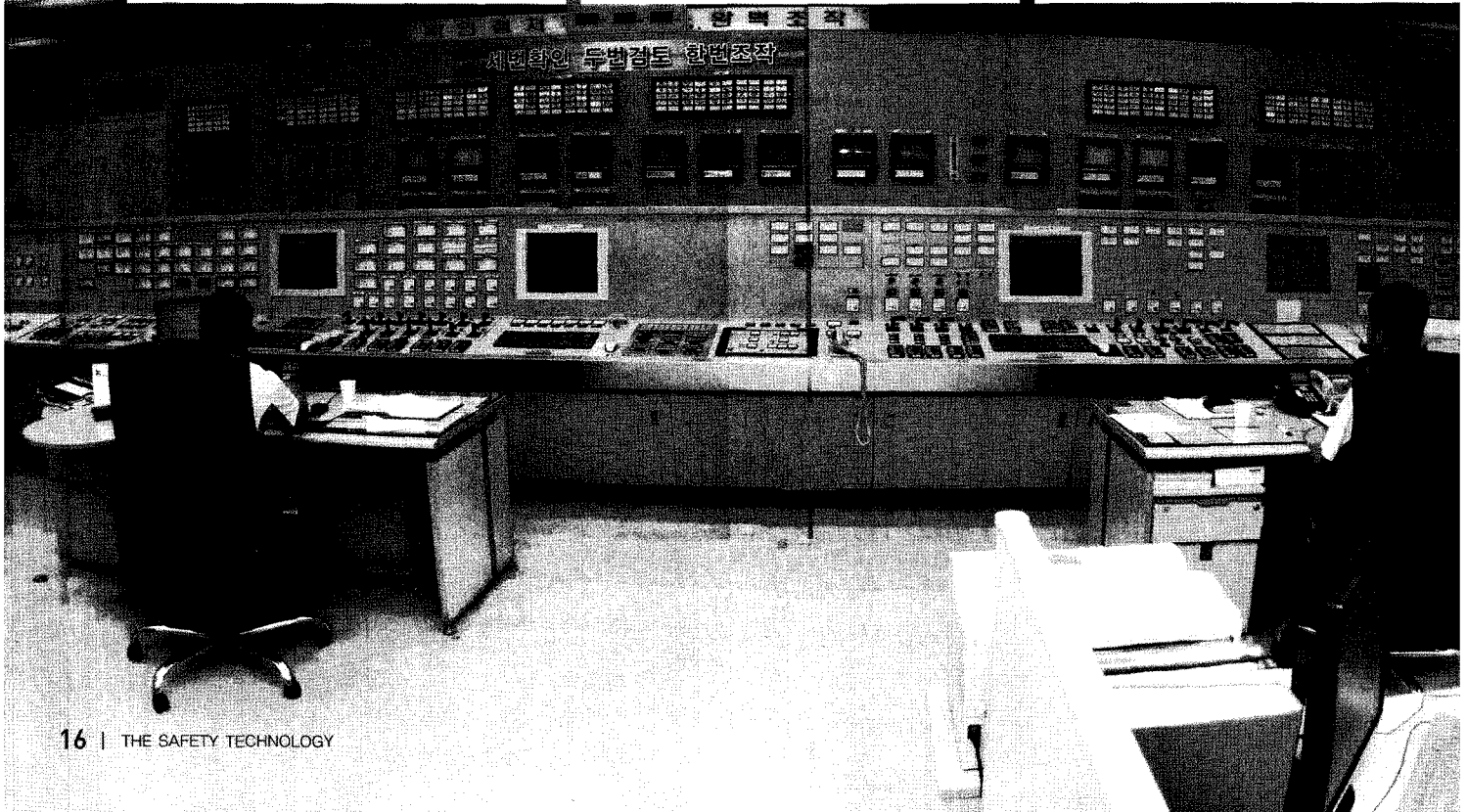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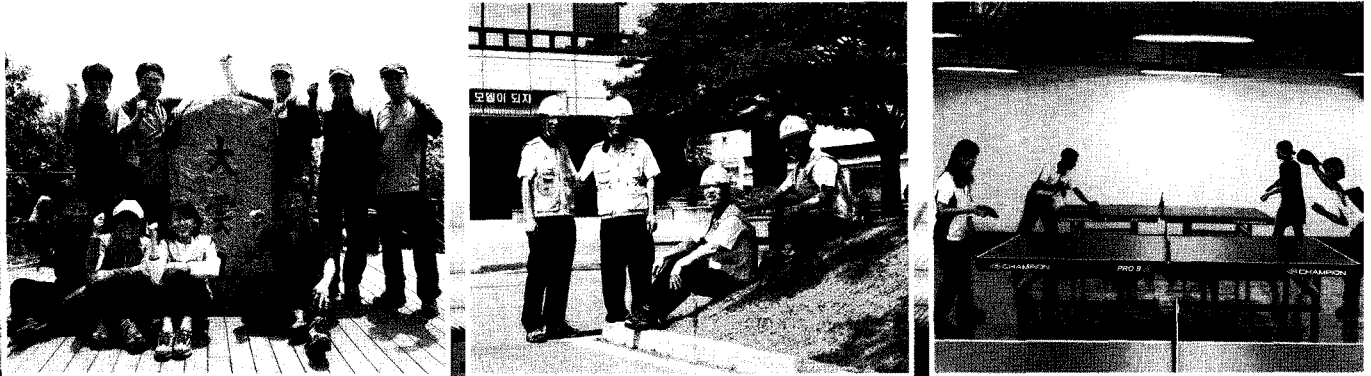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모든 일에 있어 원칙과 기본을 내세운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고의 대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섭 소장은 “불가피하게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 무리하게 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탓하지는 않는다. 순리에 맞게 일을 진행함이 더 올바른 선택임을 직원들에게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안전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이곳의 주요 공정은 크게 증기생산공정, 전기생산공정, 송압송전공정, 연소용 공기공급공정, 수처리공정, 해수냉각공정, 환경처리설비공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공정에서는 기름 및 가스누출 사고, 전기설비 사고, 폐수 누출에 따른 환경사고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해있다.

이곳은 이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환경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 시스템 인증 외에도 지난 2009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과 안전표식 표준화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TM의 발행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리고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재난·비상·안전관리시스템(DEMS)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 이후 직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문화 확산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2009년 5월부터 안전제안제도의 일환인 'ASA'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간부와 안전관리자만이 발행할 수 있었던 안전지적서를 일반직원들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유도해나가는 한편 안전 위해요인 개선효과도 최대화시켜나가고 있다.

보건관리 측면에서도 이곳은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된다. 금연클리닉과 근골격계예방을 위한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서별로 체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운동법 및 영양관리를 제시하는 '몸짱만들기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환경문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환경은 지역사회와 직결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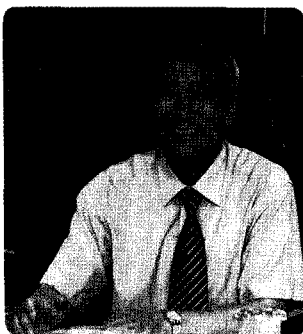
이곳은 고효율 전기집진설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전량포집하고 있으며, 최신의 탈황설비를 통해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스 중 황화합 물질을 환경규제치 농도 이하로 저감시켜 내보내고 있다. 또 공정 중 발생하는 오폐수는 중합폐수처리장을 통해 선별 정화하여 깨끗한 수질로 유지·배출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사랑 우선정책을 펼치면서 이곳은 울산시로부터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는 친근한 환경기업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친환경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안전경영으로 해외로의 진출 기대

이곳은 지난 4월 13일자로 무재해 13배수를 달성했다. 무재해 14배수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곳은 이렇듯 무재해를 이어나가는 것 외에 한 가지 큰 계획을 더 가지고 있다. 올해까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과 KOSHA와의 공동인증 체계로 해외사업으로의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안전관리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의 모습을 볼 때, 이의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은섭 소장

안전경영마인드는 산재감소에 필수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미성숙된 안전의식도 원인이겠지만, 우리와 같은 사업주들이 안전불감증에 중독돼있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경비로 인식하는 경영마인드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려있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업무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관심과 배려로 직원들의 안전활동을 이루어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